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제철 먹거리가 보약
생명 지키는 음식이 부처님
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대품반야경〉
사람은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사물의 본성은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일체 편견이 떠나면 모든 것은 깨끗하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0월 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20호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조계종, 선학원 주권 환수 '강수'

중앙총회, 특별법 결의... 대규모 추진위 구성 전망

조계종이 법인 등록을 놓고 갈등 중인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선학원과 협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는 11월 18일 속개한 200회 정기회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에 선학원의 탈종단 시도행위를 저지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단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법에서 밝힌 선학원 정상화 관련 사업으로는 △선학원과 협의의 진행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자료 수집 및 자료집 편찬 △민·형사 등 법적 절차 추진 등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는 종정 스님을 중심으로 △고문에는 원로의장과 협의해 총무원장이 위촉한 원로급 스님 40명 △지도위원회에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50인 이하의 종정 스님 △위원회에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중앙총무기관장 3인, 중앙총회의원 12인, 교구본사 주지 11인, 선학원 관련 문도 30

인을 포함한 70~100인 스님 등 총 150~20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 중앙총회회장의 협의를 거쳐 종정 스님과 원로의장 스님의 동의를 받은 스님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이, 상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천한 11~15명으로 한다

협의·민형사 절차 등 진행

"선학원 설립정신 회복 전력"

재가이사 수용 법인법 개정

대각회 특별교구로 지정돼

선학원, 20일 분원장회의서

'제2 정화운동' 결의 재확인

다.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없으며, 결원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총무부장 정 단 스님은 "선학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등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선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해결을 위한 종단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등록 법인 전면적 끌어안기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총회는 '법인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의 안을 17, 18일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는 등록 법인에 대한 종단의 '끌어안기' 정책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찰보유법인 이사 전부를 종단 승려로 규정했던 것이 2/3로 개정된다. 일부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법인 운영에 있어 재가 이사 참여를 열어두고 있어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사찰보유법인 대표자는 종단 승려로 해야 함을 명시했으며, 선학원과 대각회는 이사 전부를 종단 승려로 규정했다. 선학원 이사의 1/4를 총무원장 추천을 통해 이뤄지게 한 부분은 종정과 같이 유지했다.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리 제한을 삽입했다. 또한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업무관장 및 협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총회는 법에 탄력

적 대응을 위해 법인관리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명시하기도 했다.

선학원, 정화 결의로 '맞붙'

반면,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20일 안국동 중앙선원 법당에서 전국 분원장 회의를 열고 법인관리법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분원장 스님들은 지난 11월 3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2 정화운동 선언문'을 전폭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분원장 스님들은 회의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스이사회에 제2 정화운동 선언문 적극 찬동 △선학원 장악 음모를 막아내기 위한 '범행단'에 적극 참여 △새로운 시대 국민과 불자가 의지할 수 있는 선학원 건설 등을 주장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가 최대의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법인법은 선학원을 뺀기 위한 법"이라며 조계종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11월 3일 "조계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정화운동을 다시 한 번 시작함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 정화운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총회 관련 기사 2면



한중일 불교인 '한반도기' 흔들며

한중일 3국 불교도들의 교류행사인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가운데 300여 불교지도자들은 19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라산전망대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통선 통일대교 관련에서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피주=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3면)

한중일 3국 불교도들의 교류행사인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가운데 300여 불교지도자들은 19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라산전망대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통선 통일대교 관련에서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피주=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3면)

"조계사 성역화, 국민 정신문화 산실 될 것"

조계종, 17일 총본산성역화불사 추진위 출범

한국 전문문화를 널리 알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믿음 스님, 중앙총회회장 성문 스님, 전국 교구 본·말사 주지, 이기흥 중앙산도회장, 강창일 국회의원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는 불자는 물론 국민의 정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불사"라며 "지혜와 자비의 법륜이 더 넓고 깊고 희롱할 바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사업'과 '10·27법년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총 3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이다. 건지동 45번지 일대 토지 면적 2만8577㎡ 규모에 10·27역



출범식에 앞서 총무원 1층에서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있었다.

사교육관과 치유시설 등이 설립되고, 템플스테이체험관 등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성역화 불사추진위원회는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전국 교구본사 주지를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집행위원회가 실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조계사 일대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서원한다"며 "이번 불사는 후손이 디디고 설 공덕의 터를 넓히는 불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역화불사 총도감을 맡은 지현 스님은 "이번 불사는 10·27법년

에 대한 불교계 명예회복과 이를 통한 국민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며, 국민 정신문화 창달의 큰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며 "2015년 예산 확정 후 토지매입 등 불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은 축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불교 특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성역화 사업은 10·27법년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인사동 등과 연계한 전통문화 증진 공공사업으로 이를 흠집 내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 칼럼 31면

동국대 제18대 총장 후보 5명 등록

총장추천위 11월 21일 후보 접수 마감

28일 후보자들 질의응답

12월 4일에는 소견 발표

동국대 18대 총장 후보로 김희욱 현총장을 비롯해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한진수, 조의연, 연기명 교수가 접수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는 11월 21일 총장 후보 공모 접수결과 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희욱 현 총장은 정관계, 경제계 등의 폭넓은 인맥과 임기동안 학교발전 이끈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동국대는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11위를 비롯해 발전기금 모금과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진행 등에서 순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보광 스님도 유력한 총장 후보다. 조계종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원이며 15대 중앙총회 의원인 보광 스님은 제17대 총장후보로도 나온 바 있으며 불교계를 비롯해 종단 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진수 경영학부 교수는 학교 경영 일선에서 오랜동안 일해왔다. 2007년 경영부총장 당시 신정아 사건으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보광 스님 김희욱 연기명 조의연 한진수 (출처: 재가기자네스)

조의연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학교 내서 경영관리실장 등을 맡았다. 조 교수는 이미 불교계 언론을 통해 한국학의 불교학과 인류의 기초가 되는 영화학 등 두 분야의 교육에 집중해 동국대의 국제화를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연기명 법학과 교수는 국내 스포츠법 분야 전문가로 10여 년 동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역임하면서 10여 차례 이상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아

시아스포츠법학회 및 세계스포츠법학회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총추위는 11월 24일 정안 스님, 헤일 스님과 교수대표 황순일, 유현우 교수 등으로 이뤄진 실무위에서 후보자 자격 검증을 마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 12월 4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자 소견발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教,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 영가동참비 : 1위당 이만원 |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입재 2014.12.22 (월)
회향 2015.01.19 (월)
장소 통도사 설법전

함께가요 강의실
불광사 선택 혜담 스님
'반야바라밀의 창조력'

